"교구기능 확대 지역발전 열쇠"

향토애·정토사상 접목 … 복지·환경운동 앞장서야

'지방자치시대와 불교' 공개토론회

6월27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의 공개토론회가 열려 교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 12일 조계종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지난해 조계종 개혁을 주도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청화·지선)가 '지방자치시대와 불교; 지방화시대,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주최, 지방자치시대에 불교가 보조를 맞춰가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심익섭교수(동국대)는 '지방자치시대와 불교'란 발표문을 통해, "고통속의 중생을 구원하고 불국정토를 구현한다는 불교의 기본논리는 향토애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정신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지방자치의 기본논리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교수는 "지방자치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함은 물론, 이를 뛰어넘어 한국지방자치이념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정신적 지주역할을 불교계가 담당해야 한다"며, 대내적인 과제로 △종단조직의 분권화 △기획능력 제고를 통한 교구자치기능의 확대 △신도회 운영의 합리화를, 대외적인 과제로 △지방정치발전 및 지역발전의 지원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 △불교사회복지체계의 구현 △지역환경운동 참여 △문화재 보존과 지역문화발전 지원 등을 들었다.

◇지난 12일 조계사에서 열린 '지방자치시대와 불교의 역할' 세미나. 사찰이 지역주민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효림스님(실천승가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 4대 선거, 불교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를 통해, "이제 불교계는 개혁된 힘을 사회로 되돌려 노인정 및 탁아소를 운영하는등 사찰이 지역 대중에게 봉사하고 무엇인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시대의 불교'를 발표한 영담스님(사회문제연구소장)은 한국불교가 지역자치시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단위사찰 차원에서 △포교활동을 통해 다수의 신도를 포용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 △각종의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높여 △사회문화활동에 대한 신도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53佛 신앙의 史的가치 조명

불교학회 세미나, 지난 20일 삼광사서

한국불교의 전통신앙인 53佛신앙을 불교사 및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한 학술세미나가 지난 20일 부산 천태종삼광사(주지 춘광)에서 열렸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가 '53존불 조상(彫像) 9층8면탑의 사상사적 의의'란 주제로 연 이번 학술발표회는 현재 대웅전 옆에 9층8面의 부처님 사리탑을 조성, 그 탑신(塔身) 각면에 53부처님을 새겨 모시는 불사를 진행중인 삼광사에서 열려 그 의의를 더했다.

'53존불신앙과 천태종과의 관계'를 발표한 김영태(동국대)교수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불교신앙의 전래 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옛 신앙설화 가운데에는 53불의 도래(渡來)가 그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며 53존 불상도래의 연기설화를 소개했다. 즉 공식적인 불교전래(372)보다 무려 368년이나 앞선 신라 남해왕 원년(A.D.4)에 강원도 고성(당시 安昌縣) 해변에 53불이 쇠종(鍾)을 타고 인도(月氏國)로부터 건너와(浮來)서 물에 올라 금강산으로 들어가 현재의 유점사(楡岾寺)터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

김교수는 "10信 10住 10行 10廻向 10地 等覺 妙覺의 보살수행 52단계에다가 그 위계를 초월한 佛의 과위(果位)를 합친 숫자가 53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밖에도 이영자(동국대)교수가 '법화경과 탑파신앙'을, 홍윤식(동국대)교수가 '한국의 다면다층석탑 연구', 채상식(부산대)교수가 '9층 및 8면탑의 한국불교사적 조명'을 각각 발표했다.

"종교인, 북한통일전술 파악해야"

북한硏 고태우씨 한국종협 조찬연구회서 발표

"북한의 개방을 돕는 의미라면 남북교류에서 권장할 만한 분야는 종교인간의 교류이다. 종교인들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현상황에서 북한에 포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고태우씨(북한연구소 연구부장)는 지난 20일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조찬연구회에 참석, '남북종교인 교류의 문제점과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씨는 "당국에서는 종교인들을 교육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남북교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남북간의 종교교류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정부의 대북정책과 종교계 일부와의 견해차이의 노정 △남한 종교계의 제각각의 목소리와 개별적인 접촉시도 △(평양 단군릉 같은)민족 정통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통일적인 대처가 미흡한 점 △정부의 방북 지침(가칭)이 부재한 것 등을 지적했다.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명부전(冥府殿)

慈因積善蒼救衆生
(자인적선서구중생)
懺切歸依奚遲感應
(당절귀의해지감응)
掌上明珠光攝大千
(장상명주광섭대천)
手中金錫振開玉門
(수중금석진개옥문)
常揮慧鎧斷滅罪根
(상휘혜일단멸죄근)
業鏡臺前十殿調律
(업경대전십전조율)

자비의 인연으로 적선하고
중생구제를 서원하니
간절히 귀의하면 어찌 감응
이 더디리오.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 대
천세계를 비추고
손안에 쇠지팡이는 지옥문
을 열어주네.
항상 지혜의 칼로 죄의 뿌
리를 잘라버리고
업경대 앞에서는 시왕(十
王)이 법률로 다스리네.

해설 통도사 명부전은 대웅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초창되었으나 중건중수의 기록은 자세히 전하지 않는다. 명부전의 명부란 저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부전은 지옥세계를 관장하는 전각을 뜻한다. 중앙의 지장보살과 좌우에 5개씩의 시왕탱(염라대왕을 포함한 십대왕의 그림)을 안치한 것이 명부전의 내부 구조다. 시왕탱에는 죄인들이 지옥의 고통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같은 명부전 내부의 구조와 내용은 전각 앞에 걸린 주련의 의미를 이해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 앞의 두 구절은 지장보살의 원력과 덕화를 표현한 것이고 다음 두 구절은 위신력을 나타낸 글귀이다. 지장보살은 알려진 대로 지옥 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지옥계를 제도한다는 큰 원력을 가진 보살이다. 그러한 보살의 손에 든 구슬과 쇠지팡이는 지장보살의 위신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 두 구절은 지장보살의 지옥중생 구제와 명부(저승)에서 죄를 심판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련의 내용은 지장보살의 원력을 찬탄하고 죄짓지 않고 살아 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승에서의 삶은 언제나 죄의 연속이다.

통도사

지옥중생 구제하는 지장보살 찬탄

마음공부가 잘 안되는데…

문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이 늘 궁금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만 제 가슴에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효경·인천시 북구 효성동〉

답 어느 때인가 내가 한 불제자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만 잘해나가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했더니 '그냥 합니다'라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그냥? 그래 그냥 그냥이야. 그냥해도 안돼고 그냥 그냥이지. 그대로 해봐'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있던 사람이 무슨 말이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물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주었습니다.

늘 그랬지만 생활하면서 앞에 닥치는대로 주인공을 믿고 놓으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보·유전·영계·인과성의 문제가 다 녹아내려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여기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세요. 국민학생이 대학엘 가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공부가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본래 공부했는데 그걸 모르니 어떻게 하나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것부터 알아야 하나마저도 없는 도리를 알게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된다는게 무슨 운동 열심히 해서 근력이 강해지듯 그런게 아니지요. 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일이 잘 안풀리고 우울한 생각, 비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아마도 공부가 안되기에 그런가보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나온 자리에 맡겨 놓아야 바른 공부가 됩니다. 공부하는 그 '나'마저도 공이어야 합니다.

주인공에 놓는 게 '구함'이 아닌지

문 스님께서는 여러 갈래의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아나가면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편안해진다고 하십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마음 편해지는 방편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인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대로라면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경계를 구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다면 잘못이 아닌지요?

〈강천주·부산시 남구 우암동〉

답 놓으려면 믿어야 하고 믿는다면 몰락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놓는게 못되지요.

잘 되는 것, 잘 안되는 것 다 놓아야 합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놓고 잘 안된다고 여겨질 때는 이것 또한 마음을 갈고 닦는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해서 놓아야 합니다. 안되는 일을 두고 언짢게 생각하기 쉬운데 되는 것도 법이요, 안되는 것도 법입니다.

가령 회사를 경영할 때에 사람마다의 능력에 따라 높이 쓸 사람은 높이 쓰고 낮게 쓸 사람은 또 낮게 써야만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하질 못한데서야 어떻게 회사를 잘 경영한다고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놓고 배우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대로 놓고 배워야 합니다.

악도 선도 공부차원에서 보면 다 놓고 배울 재료입니다. 그리고 놓고 가다보니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본래 붙잡고 매어달릴 게 없으니 '평상심이 곧 도'라 그냥 편안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 몸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중생들도 다 편안할 것이니 닥치는대로 놓고 갈 수 있어 좋지요.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본래 '나' '나의 것'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으니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하라, 나를 만든 것도 주인공,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주인공, 일체가 다 주인공의 몫이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다 알아서 하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해도 겁내지 않고, 죽는 것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일 때 그 편안함이 최고의 편안함이며 그야말로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빼놓지 않고 머리만 굴려 대니까 요렇게 할까, 조렇게 할까 하며 제법 영악한 생각만 하려 듭니다.

또 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일임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타종교의 절대자와 비슷한 소리를 한다, 절대자를 이름만 바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서 날보고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빗나간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란 본래 공한 것입니다. 찰나찰나 쉬지않고 돌아가기에 고정되게 '나'라고 할 그 무엇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삼아 '나는 누구인가?' 또는 '이 뭐꼬?'를 참구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구하고 보니 공(空)이란 말입니다. 나를 형성시켰고 오묘하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 했고 개별적인 무엇으로 알까봐 주인공의 공을 빌 공(空)자로 썼습니다.

참구끝에 공(空)을 알았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요? '아하, 나라고 할 것은 본래 없구나.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구나. 살고 죽는 것도 매달릴게 못되는 구나' 하겠지요. 정말 깨달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서울 가는 길로 바로 가라는데 왜 그게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철석같이 믿으라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도 아니고 '해주십시요'도 아닙니다. 철석같은 믿음입니다.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부처님 말씀 친필작품
보시하는 마음으로 써드립니다.
268-5702 남강서실

조문객 -접대음식-
·육개장·대구탕 外
·홍어회·조듬어·북어찜 등
이조 924-9211
과방 925-4961
소모품 제공·봉사요원 파견

사찰터 임야 9천평
청주근교 보은방향 그린벨트 지역(사찰가능)
□ 2천평은 사찰터로 시주
□ 7천명은 1억 4천에 매매
연락처 : 0431-66-0958 이공래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참신하고 염불에 능한 스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불심포교원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84-10
전화 : (051) 465-5100, 467-5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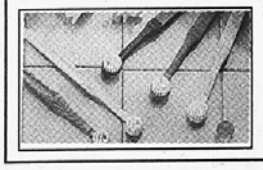
관절염 암
샤크리지(SHARKLAGE)
100% 상어연골로 해결하십시오!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다른 기관으로 전이를 멈추게 함(ANTIANGIOGENESIS 작용)
·연골의 퇴화를 억제하고 새로운 연골의 생성을 촉진시킴.
·염증을 감소시키고, 치료를 향상시키며, 세포분열을 억제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각종 바이러스를 없앰.
※ 본 제품은 천연의 단백질, 칼슘, 탄수화물, 인, 아연 등이 함유되어 있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수입판매원 : (주) 도백 식품사업부
Tel. (02) 540-7749 (代) / Fax. (02) 540-7779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 (02)552-1470(대) / 팩스 :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윤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 : (02)556-3076~7 ■팩스 : (02)556-3078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고교 졸업과정 | ⊙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대학 졸업과정 |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개인지도용) 특별제공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원(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